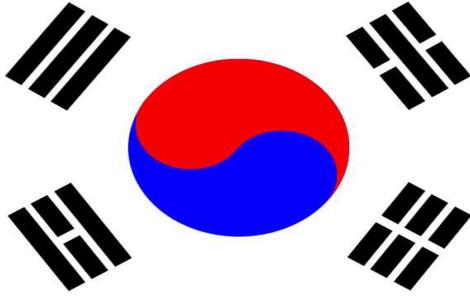


# 바다무지개

2015년 7월호



## 7월 17일

##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렸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체(政體)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 하여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만약 남북의 통일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와 부칙(附則)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國旗)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 이달의 interview



국적 : 네팔(Nepal)  
성명 : Narayan Paudal  
나이 : 36세(1979년생)



**네팔연방민주공화국(Nepal)은 히말라야산맥 중앙부의 남쪽에 위치**

공식 국명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북쪽으로는 중국의 티베트와 히말라야산맥을 사이에 두고 접하며, 그 외 지역은 인도와 접한다. 카트만두 분지는 네팔계곡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계곡 이름에서 국명이 유래했다는 설과 성스럽다는 의미의 '네(Ne)'와 동굴이라는 의미의 '팔(pal)'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2008년 7월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뀐 네팔(Nepal)은 히말라야산맥 중앙부의 남쪽에 위치한다.



[사진1] 네팔 국토



[사진2] 수도 카투만두 전경

면적은 14만 7,181㎢, 인구는 2,951만 9,114명(2008년 현재)이며, 수도는 카트만두(Kathmandu)이다.

종족은 아리안족이 80%, 티베트 몽고족이 17%이며, 언어는 네팔어가 공용어이다. 종교는 힌두교가 80.6%, 불교가 10.7%, 기타 4.2% 등이다

인구의 95%가 농촌에 살고, 노동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한다. 200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96억 2,700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400 달러이다. 네팔은 의원내각제의 공화국으로서, 의회는 단원제(6이석)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네팔공산당(CPN-M), 네팔국민회의당(NC), 공산당연합(CPN-UML) 등이 있다.

### 네팔국기의 태양과 달은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네팔은 존재



[사진3] 특이한 국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를 가지고 있어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위 아래 양쪽으로 삼각형 두 개를 놓은 형태와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긴 유일한 국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란색 테두리는 평화를 의미, 빨간색은 네팔을 상징하며 태양과 달은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네팔은 존재한다는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음의 왕조를 의미한다.

## 네팔은 9세기에 시작되어 역사 깊고 생동감을 가진 국가

네팔은 9세기~14세기까지 인도의 지배를 받았으며, 1769년 구르카(Gurka) 왕조의 나라얀 왕이 카트만두 계곡의 네와르족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건설하였다. 1814년 영국에 지배당할 때까지 독립을 유지해 왔다. 1846년 이후 100년 동안은 영국의 지원을 받은 라나가(家)의 독재정치가 실시되었으며, 1951년 2월 18일 왕정이 복고되면서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고 독립을 이루었다.

\* 네팔 [Nepal]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진4] 카트만두 계곡의 왕조

의회는 1960년 12월 국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촌락의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국가 판차야트(Rastriya Panchayat)가 1962년 입법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정당은 배제되었다. 1967년 제1차 헌법개정이 이뤄지고, 1972년 1월 현재의 비렌드라 국왕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1979년 각 단계의 가이드라인 아래에서만 활동을 허락하는 판차야트 제도는 국가적인 저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1980년 판차야트 정치체제 존속과 정당정치 부활 중 양자택일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자의 54.8%가 판차야트 존속을 지지함에 따라 제3차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지속적인 무장 테러에도 불구하고 1986년 4월 선거 결과 국왕에 대한 지지도가 1981년보다 더 높아지자 정치집단들은 지하활동을 시작하여 결국 '네팔연합 마르크스 좌익주의자'라는 공산당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국내의 반대와 시위대에 대한 네팔 당국의 과잉 진압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비렌드라 국왕은 1990년 4월 6일 범민주주의 운동에 굴복하여 헌법개정위원회 발족 동의, 복수정당제 부활 약속 등 판차야트 제도는 결국 여러 분야의 압력으로 붕괴되었다.

1990년 11월 9일 비렌드라 국왕은 주권재민, 서구형 입헌군주제, 기본적인 인권 보장, 다당제 민주주의를 공포하였다. 1991년 5월 2일 정당 참가에 의한 32년 만의 총선거에서 네팔의회당(NC)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네팔공산당(CPN-UML)이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1야당이 되었다.

NC의 사무총장 코이랄라가 수상으로 임명되었으며, 선거 후 60명의 의회 의원은 새 헌법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 10명과 함께 하원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인도를 비롯한 이웃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1994년 7월 의회에서 NC 내 반(反) 카이라라파 의원 불참으로 차기 회계연도 정부사업 계획이 부결되자 코이랄라 수상은 의회 해산 및 수상직 사임을 국왕에게 건의하였고 국왕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가 결정되었다. 총선 결과 제1야당이던 네팔공산당이 전체 하원의석 205석 중에서 88석을 차지하여 네팔의회당, 국민당(RPP)을 누르고 승리하여 아디카리 수상의 네팔공산당 소수 단독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네팔 의회당측은 공산당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및 국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디카리 수상은 1995년 6월 9일 비렌드라 국왕에게 국회해산을 건의, 국왕은 국회 해산(6월 13일) 및 조기 총선(11월 23일) 실시를 결정하였다. 선거 결과 국민당의 타파(Surya Bahadur Thapa) 수상의 연립정부가 출범되었다.

한편, 2001년 6월에는 네팔의 왕세자가 국왕과 왕비 등을 포함한 10명의 왕족을 총으로 사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네팔에는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파업이 계속되었고, 뒤 이어 즉위한 가네티라 국왕은 이에 굴복하여 2002년에 해산된 의회를 복원한다고 발표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네팔 정부가 반란진영 마오군(모택동주의자)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11년간의 내전이 공식 종료되었다.



[사진5] 최초대통령 Ram Baran Yadav

2007년에 왕정이 종식되고 2008년 5월 28일부터 공화제가 되면서 마침내 2008년 7월 21일 네팔은 왕국에서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람 바란 야다브(Ram Baran Yadav)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수권자 기리자 프라시드 코이랄라(Girija Prasad Koirala) 총리가 내각을 이끌었다. 이후 2014년 2월에 취임한 수실 코이랄라(Sushil Koirala)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있다.



[사진3] 네팔 개발지구



[사진3] 네팔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14개 주(anchal)로 이루어져 있다. 14개 행정 구역은 Bagmati, Bheri, Dhaulagiri, Gandaki, Janakpur, Karnali, Kosi, Lumbini, Mahakali, Mechi, Narayani, Rapti, Sagarmatha, Seti 등이다.

\* 네팔 [Nepal] (두산백과)

### 네팔과 한국은 1973년부터 41년간 외교관계 유지

네팔은 전통적인 중도중립의 비동맹국가로서 1955년 유엔에, 1961년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였다. 이에 대한민국과 네팔은 1969년 7월에 영사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2년 6월 주카트만두 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1974년 5월 15일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양국은 1971년 5월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88년 2월 항공 협정, 1997년 9월 EDCF기본 협정, 2001년 10월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과 2005년에 문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네팔 수출액은 2007년 현재 1872만 7000 달러로 주종목은 전기전자제품과 철강이며, 수입액은 60만 달러로 농산물과 석유류가 주종목이다. 삼부토건 등 건설회사가 현재 진출해 있으며, 353명의 체류자가 있다.



[사진6] 2014년 네팔-한국 수교 40주년

1973년 네팔과 한국이 수교한 이후 2014년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콘텐트를 개발하여 태권도 퍼포먼스와 비보이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한국의 열정과 에너지를 맘껏 선보였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 수자원 및 관광자원을 보유한 네팔과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등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5월 15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78년 12월에는 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1997년 2월에는 문화교류 계획서, 2001년 10월에는 외교부간 협의체 구성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 4월에는 정보통신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정보기술 협정을 갱신하였다.

\* 네팔 [Nepal,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세계 최대 히말라야산맥,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로 상징되는 국가

네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첫 번째 명품은 에베레스트 (Mount Everest)는 세계 최고봉으로 8,850m으로 인도 북동쪽, 네팔과 중국남부 티베트 국경에 있으며 "우주의 어머니" 또는 "지구의 여신" 을 뜻하는 이름은 티베트어 이름 Chomolungma(스펠링 Qomolangma 라고도 함)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다. 네팔에선 Sagarmatha(सगरमाथा) 라고 부르는데 뜻은 "하늘의 여신" 이다. 에베레스트는 영국 귀족이자 지리학자인 George Everest 경을 따른 것이다.



[사진7] 세계 최대의 히말라야산맥



[사진8]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세계 10대 최고봉 가운데 8개를 보유한 국가로 지형이 험악하기로 유명한 산악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서 두 국가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되는 국가이다.

[표1] 세계의 주요 산

순위	명칭	높이(m)	위치
1	에베레스트 산 (Mount Everest)	8,848	인도 북동쪽 히말라야 산맥
2	케이투(K2)	8,611	인도 카라코람산맥 중앙부
3	칸첸중가 산 (Kanchenjunga Mt.)	8,603	인도 시킴주와 네팔의 경계
4	로체 산(Lhotse Mt.)	8,516	히말라야 산맥
5	마칼루 산(Makalu Mt.)	8,463	네팔과 티베트 국경
6	초오유 산(Cho Oyu Mt.)	8,201	네팔과 티베트 국경
7	다울라기리산 제1봉 (Dhaulagiri I Mt.)	8,167	히말라야 산맥 칼리간다크 계곡 서쪽
8	마나슬루(Manaslu)	8,163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
9	낭가파르바트 산 (Nanga Parbat Mt.)	8,125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히말라야
10	안나푸르나산 제1봉 (Annapurna I Mt.)	8,091	네팔 히말라야 산맥 중부

\* [네이버 지식백과] 안나푸르나산 [Annapurna Mt., 一山] (두산백과)

해발 8,091미터의 안나푸르나 제1봉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산이다. 포카라 바로 북쪽에 있는 안나푸르나는 네팔의 중앙에 있다. 서쪽과 북서쪽에 누워 있는 빙하들은 칼리간다키 협곡으로 흘러간다. 안나푸르나 산괴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그중 다섯 봉우리가 '안나푸르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최고봉인 안나푸르나 제1봉과 제2봉은 산괴의 서쪽과 동쪽 끝에 마치 북엔드처럼 서 있다. 1950년에 모리스 에르조의 원정대가 안나푸르나 제1봉을 북사면을 통해 올랐다. 이는 8,000미터가 넘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로는 최초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크리스 보닝턴이 남사면으로 올라 정상을 정복했다. 1978년 미국 여성 이렌 밀러와 비라 코마르코바는 북쪽 루트로 정상에 올랐다. 그때가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정상을 정복한 것이었다. 1988년에는 미국인 스티브 보이어가 이끄는 대규모 프랑스 원정대가 남쪽 루트로 등반을 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안나푸르나 [Annapurna]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 마로니에북스)

트레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4월에서 10월 사이이다. 겨울에는 루트가 눈에 덮이기 때문이다.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확의 여신'이라는 뜻이다.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부자의 모습이 너무도 정겹다.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다시금 느껴지는 사진이다.



[사진9]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부자

### Narayan Paudal의 고향은 포카라(Pokhara)

Narayan Paudal 고향인 포카라(Pokhara)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으로 약 200km, 해발고도 900m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과 관광의 도시이며 네팔의 제2의 도시이다. 도시명은 '호수'라는 뜻의 네팔어(語) '포카리'에서 유래하였다.



[사진10]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과거에는 인도●티베트와의 무역 중개지역으로 번영하였으며, 현재는 인도와 네팔을 연결하는 동시에 평지와 산지를 이어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히말라야 등산과 트레킹을 시작하는 서쪽 출발점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50여 개의 코스를 시작할 수 있다.

아열대 기후로 겨울에도 따뜻하며,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려 이루어졌다는 거대한 페와(Fewa) 호수 외에 베너스호(湖), 루파호 등이 있어 뱃놀이, 낚시 등 다양한 수상놀이를 즐길 수 있다. 페와호 가운데 있는 성(城)에는 힌두교 사원인 바라히 사원이 있다. 주변에 데비폭포(Devi's Fall), 마헨드라구파(Mahendra Gupha) 동굴, 사랑코트(Sarangkot) 전망대 등 볼거리가 많다.

\* [네이버 지식백과] 포카라 [Pokhara] (두산백과)



[사진11] 페와(Fewa) 호



[사진12] 데비(Devi's) 폭포

네팔에는 아버님과 누나 5명, 그리고 환경 NGO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청결한 네팔을 보존●홍보하고 있는 형님 한분 그리고 Narayan Paudal는 막내로 유복한 가정에서 생활 했다. 지금은 결혼하여 부인 그리고 12살 초등학생 큰딸과 1살인 막내딸이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카트만두에서 살았다.

지금은 한국에 혼자 있으면서 가족 걱정이 되지만 작년 2013년에 태어난 막내딸이 보고 싶단다. 얼굴도 보지 못해서 매우 슬프다 한다. 작년 막내 딸 출산 때에 휴가를 내려 하였으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휴가를 얻지 못해 더욱 보고 싶단다. 이번 달에 어렵게 휴가를 얻어 네팔에 가 모처럼 가족과 재회할 예정이다.



[사진13] 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사진14] 12살 먹은 초등학교 큰딸

이처럼 아름다운 지역에서 살면서 한국에 왜 오게 됐는지 동기를 묻자 한국과 네팔이 고용허가제(EPS) 협약(MOU)이 있는 2008년 이후 첫 번째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MOU로 인해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 한국 근로조건이 매우 좋으며 홍보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서로 한국에 오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다. Narayan Paudal은 해외취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이미 말레이시아(Malaysia)와 싱가포르(Singapor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한국에 가겠다고 쉽게 맘을 먹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열심히 하여 EPS-TOPIK에 합격하였고 즉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근로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1년 6개월 동안 비행기 부품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IMT 자동차 부품사업장으로 옮겨 재고용되어 현재까지(약 5년) 근무하고 있다.

Narayan Paudal이 근무 중인 IMT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하며 싱크로슬리브 생산 전문 업체, CU조인트, 클러치기어, 드라이브샤프트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의 장점이 뭐냐 물으니 ‘일이 너무 많아서 좋다’고 한다. 그러면 회사의 단점이 뭐냐 물으니 ‘일이 너무 많아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한다. 2시간 작업에 10분 쉬는데 10분이 너무 짧아 5분 정도 더 쉬길 희망하지만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주야간 1주일씩 교대근무하며 충분한 급여를 박소 있다. 다른 사업장은 일거리가 없어 한숨 쉬고 있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은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다.

IMT에는 전 직원이 100여 명되며 외국인근로자가 15명인데 네팔 9명, 캄보디아 3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1명이 근로 중이다. 네팔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없지만 화물자동차는 인도, 승용차는 한국과 일본자동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진15] IMT 사업장 앞에서



[사진16] 2분 휴식

한국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으면 한국에서의 생활비 70~8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본국의 부인에게 보내고 있다. 회사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기숙사로 제공할 정도로 복지 제도가 우수하며 400%의 보너스도 받고 있고 회식도 평균 한 달에 2회 이상 이뤄지고 있는 아주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이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좋으니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왜 이처럼 한국 생활비를 많이 쓰는가를 물으니 아무래도 본인이 한국에 오래 있었고 나이도 많고 하니 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다. 역시 커뮤니티의 리더다운 생각이었다.

Narayan Paudal는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여 자주 친구들, 네팔근로자들과 어울려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과의 약속 그리고 네팔커뮤니티에는 꼭 참석하여 함께 웃고 즐기고 대화하며 한국에서의 우정과 삶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진17]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사진18] 소통을 위하여

Narayan Paudal는 Community Leader로서 네팔근로자들을 위해서 힘든 일은 도맡아 하면서 힘들어 하지 않는다.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네팔근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사진21] 앞줄 왼쪽 2번째



[사진22] 맨 앞줄가운데

Narayan Paudal는 네팔음식커뮤니티도 개최하여 다른 국가 근로자들에게도 네팔음식 체험기회도 만들어 주고 그날은 반드시 네팔 전통음악에 맞추어 전통춤도 선보이며 모든 국가의 근로자들에게도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사진19] 맛있는 네팔 음식커뮤니티 개최



[사진20] 흥겨운 네팔 전통춤도 추고

2015년 05월 17일 “2015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의 외국인근로자분야에서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상장과 부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산업현장에서 3년이상 근로한 모범적인 근로자에게 수여되는 이번 대상에서 맡은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로하여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는 빛 베풀고 나서 원만하고 통을 처리해 줌으로서 꿈과 희망을 안겨줌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도 성실하고 쾌활한 청년으로 정평이 자자하여 주위에 많은 한국인들로 부터도 훌륭하다고 큰 칭찬을 받고 있다.



[사진23] 2015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모범 외국인근로자상을 수상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음 (왼쪽 4번째)



[사진24] 2015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포상 후 경상남도 도청 정원에서 기념촬영

Narayan Paudal은 한국 근로를 마치고 한국 출국 후 네팔로 돌아가면 그동안 한국에서 근로하며 수도 카트만두에 사 놓은 땅(1,000m<sup>2</sup>)에 집도 지으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입국 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업과 생활용품 마트업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기회가 되면 한국 상품 전용코너도 만들어 한국의 우수 상품을 매장에 전시하고 판매하고 싶어 한다. 아무쪼록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을 많이 배우고 한국 우수상품들을 잘 메모해 놓았다가 본국에서의 사업에 적용해서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

**네팔 지진피해 복구 성금을 8월 30일까지 연장 모금 중**

**예금주 : 네팔지진피해성금모금**  
**계좌번호 : 경남은행 221-0013-0338-06**

**모든 분들의 성금참여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2015년 네팔 지진은 2015년 4월 25일 UTC 6시 11분 26초(네팔 표준시 11시 56분 26초)에 발생한 모멘트 규모 7.8, 메르칼리 진도 IX(격렬)의 대지진이다. 진앙은 네팔 간다키 구 고르카 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대략 15km로 매우 얇은 편이다. 이 지진은 1934년 네팔-비하르 지진 이후 네팔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인해 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8천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망인의 수는 아직 잘 모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진으로 인해 카트만두 계곡의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과 같은 여러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파괴되었다. 에베레스트 산에도 눈사태가 발생해 2014년 에베레스트 눈사태 이후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피해액도 30~35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4월 26일 UTC 7:09:08에는 규모 6.7의 여진이 발생했다. 5월 12일 UTC 16:05:19에는 카트만두 동쪽 83km지역에서 규모 7.4의 본진과 가까운 여진이 발생했다. 이처럼 연속 발생하는 지진 여진으로 네팔 국민 모두는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한국에서 근로 중인 네팔근로자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전 직원이 모금에 동참하였고 지난 5월17일 “2015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모금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 해 주셨다. 모금된 성금은 9월 중 네팔 EPS-TOPIK 시험 시 집을 잃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네팔 국민을 위해 천막을 쳐 드릴 생각이다.



[사진25] 지진피해로 모두 집을 잃고



[사진26] 지진피해로 사망자도 발생

나라	사망자	부상자	소계
네팔	8,492+	16,808+	25,300+
인도	78	560	638
중국	25	383	408
방글라데시	4	200	204
<b>전체</b>	<b>8,599+</b>	<b>17,951+</b>	<b>26,550+</b>

[표2] 네팔지진에 의한 인명 피해



[사진27] 사진으로 보는 네팔 지진피해의 참상

끝으로 다시 한 번 네팔 지진피해에 대하여 머리 숙여 슬픔을 같이하고 후,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계좌로 성금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금을 기다리겠습니다.

# 네팔대지진 성금모금

저희 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교육문화,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2015년 4월 25일 발생한 네팔대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국민들을 위해 성금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모금활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안내

현금후원 : 1. 계좌이체(경남은행 221-0013-0338-06  
예금주 : 네팔지진피해 성금모금)  
2. 센터내 모금함에 직접 후원

현물후원 : 의약품(연고, 상비약, 밴드 등), 옷, 이불 텐트,  
침낭 등의 물품 센터로 직접 전달

## 앙코르 유적 프레이아피투 사원 복원 사업 다시 살아나는 크메르 제국의 영혼

글·사진 |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캄보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단연 앙코르(Angkor) 유적일 것이다.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주에 위치한 앙코르 유적은 9세기부터 15세기에 걸친 크메르 제국의 수도로서,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이다. 앙코르 유적은 200여 개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원마다 담긴 신비로운 이야기가 유적을 찾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1.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내려다 본 전경



2. 인공호수에 비친 앙코르와트

### 연 200여만 명의 외국관광객 방문하는 세계적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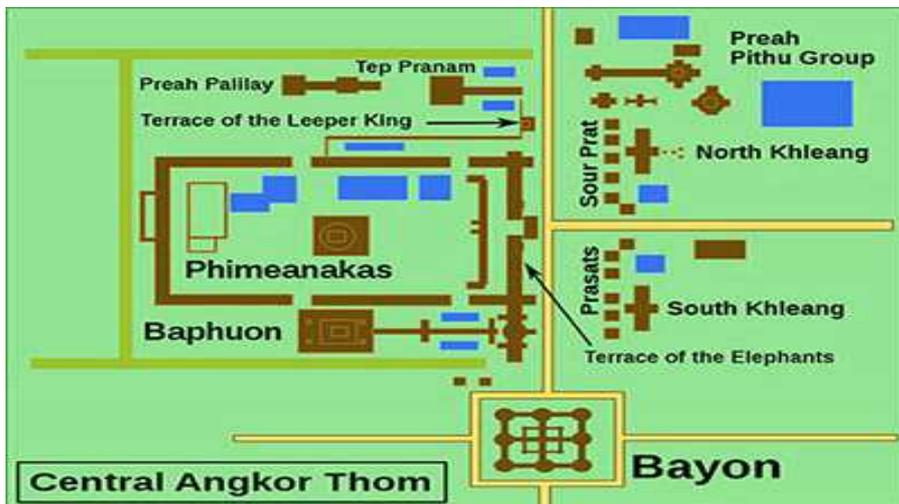
이미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앙코르 유적은 여러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툼 레이더>의 배경이 된 따프롬 사원은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장소이며, <화양연화>에서는 양조위가 사랑을 봉인하는 장소로 앙코르와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를 찾은 450만 명의 관광객 중 205만명의 관광객이 앙코르 유적을 방문할 만큼 앙코르 유적은 캄보디아 관광산업을 이 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사업 RD체결식 (백숙희 캄보디아 사무소 소장, 분 나리(Bun Narith) 암사라 청장).

‘Kingdom of Wonder’ 앙코르 유적지에서 코이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앙코르 톰 유적지 내 대표 사원인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이 그것이다.

코이카, 400만 달러 투입... 문화유산 ODA 첫걸음



앙코르 유적 지도 우측 상단에 위치한 프레아피투 사원

프레아피투 사원은 앙코르 유적 가운데 가장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앙코르 톰 (Angkor Thom)의 북동편에 위치한 사원으로, 12~13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 5개의 힌두·불교 사원과 해자로 구성되어 있다. 코이카의 사업 내용은 프레아피투 사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진입 테라스 복원, 현지 전문 인력 기술교육 및 홍보관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KOREAN DREAM

"메르스 공포도 코리아인 드림 막을 순 없죠"

인니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장 가보니  
"급여 높고 기술 배우기 좋아"... 2만여명 응시 뜨거운 열기  
지문인식기 통해 본인 확인  
시험유형 네가지로 분류 등 부정행위 방지 총력 기울여

자카르타=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입력시간 : 2015/06/29 18:13:39 수정시간 : 2015/06/29 18:13:40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에사웅굴대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지난 28일(현지시간) 고용허가제(E-9)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치러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에사웅굴대학교. 한국에서 근로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응시자들이 벨 소리와 함께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올해 딱 한번인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좌우되는 까닭에서인지 마치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듯하다. 한 교실에 40명씩 들어가는 12개 시험장마다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영향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시험에서 떨어져 1년 반째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안드레아스(24)씨는 "메르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다"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8개월째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하난(25)씨는 "대만에서 3년간 자동차 정비 일을 했다"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대우를 해 주고 기술을 배우기에도 좋아 많이 선호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70분짜리 시험을 보기 위해 왕복으로 꼬박 하루가 걸려 온 응시생도 있다. 수마트라섬에서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전날 도착해 시험을 치렀다는 나나(23)씨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졸업을 못했는데 남편이 일하고 있는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힘들 뿐더러 일반적인 월급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다. 최대 4년10개월 동안 안정된 곳에서 4~5배의 돈을 벌 수 있어 한국에 오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부정시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응시자들은 입장할 때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금속탐지기로 휴대폰 소지 여부를 점검 받은 뒤 사진 대조작업까지 이뤄진다. 본인 확인은 여권만 가능하다. 장병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장은 "시험문항도 비공개일 뿐 아니라 유형도 네 가지로 해 철저하게 문제 발생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자카르타·반둥·솔로·수라바야 등 4곳에서 치러진 인도네시아 한국어능력시험에는 2만8,556명의 응시자 중 971명만이 불참해 응시율이 96.6%에 달했다. 200점 만점(읽기·듣기)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5,800명이 합격해 외국인력 풀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현재 27만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7,355명을 포함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6만1,909명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15개 인력송출국 중 네팔·캄보디아와 함께 가장 많은 인력을 보내는 나라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과 함께 기능수준과 직무능력을 종합평가해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선발체계를 포인트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 신체적 조건 등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 캄보디아 EPS-TOPIK 성공적으로 진행

[캄보디아EPS]제12회 EPS-TOPIK이 6.27~28까지 프놈펜 시내 7개 시험장에서 38,362명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노동직훈부(MLVT), 송출기관(MTOSB), 재캄한국대사관, 한인회, 교민,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한 본부위원 등 관계자들 협조 속에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재캄보디아 EPS Center 박동준 센터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하동 자원봉사



6월6일 현충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경남 기능향우회와 함께  
하동 악양면을 찾아 자원봉사 활  
동을 실시했습니다.

방충망 교체, 마을 페인트 칠 등  
무더운 날씨였지만 마을을 위해  
땀 흘린 봉사의 시간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베트남의 "당공선" 씨도 함께 참  
여해서 자리를 더욱 보람 있게  
채워주셨어요~~^^

## 강사 · 자원봉사자 간담회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정보화 교육 및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해주시는 CFC 강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상반기 교육  
서비스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점과 개선사항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5. 06. 07(일)

12:00~13:00

장 소 : 종가집

대 상 : CFC 강사, 자원봉사자

내 용 : 교육서비스 개선 및 건의사항



## 무료이미용

## 경남봉사미회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남봉사미회와 함께하는 제12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른 시간부터 봉사를 위해  
모여주신 고마운 봉사미회분들과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일 시 : 2015. 06. 14(일)

08:40~12:40

장 소 : 센터 교육실 복도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봉사단체 : 경남봉사미회



## 이수인 헤어파크

베트남출신의 이수인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이수인 헤어파크"에서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 새롭게 오후에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로 발  
디딜틈이 없었네요 @.@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일 시 : 2015. 06. 14(일) 15:00 ~  
17:00

장 소 : 센터 교육실 복도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봉사단체 : 이수인헤어파크



## 동아리 활동

더워지는 날씨보다 더욱 뜨거운  
한글 노래교실 동아리의 열기 ^^

오늘은 더욱 많은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모여 한글 노래교실 동아  
리에서 향상된 실력으로 KPOP을  
연창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시간가는줄 모를 정도로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



사진

## 2/4분기 1차 Workshop

6월 17일 수요일, 2/4분기 1차  
workshop이 있었습니다.

노무사 김승환님께서 저희 센터로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특강  
주제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관련  
강의였습니다.

중요한 주제로 열심히 특강을  
해주셔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TOPIK 합격 / WEDUDAY



## WEDUDAY

6월의 마지막 Weduday와 함께 상담  
통역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  
다.

먼저 행복속담에서는 한국 속담 '호  
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발표해 주셨는데, 적은 힘으  
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  
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상담통역원 역량강화교육에서는  
상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신청안내에  
대해 토론 및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 TOPIK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0회 TOPIK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TOPIK 시험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

바쁜 회사생활에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회사생활과 한국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외국인근로자분들  
앞으로도 더욱 멋진 성과가  
기대됩니다.

## 6월 생일파티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6월 생일을 맞이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6월 생일 축하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수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일 축하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법률 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창원 중부 경찰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위한 필수 생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께서 한국 생활을 하며, 반드시 알고, 지켜야하는 생활 속의 법률과 함께 여름철 피서지에서 준수해야할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맛있는 다과와 선물까지 ^^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컴썩썩왕 대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8회 컴썩썩왕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느새 8회가 된 대회속에서 그동안 정보화 교육 수업을 받은 외국인력분들의 실력이 썩썩!! 향상 됨을 모두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우수상 베트남 투안  
우수상 베트남 기아란  
장려상 베트남 교반칸  
씨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문서 작성을 하신 모든 외국인력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 F-4동포비자 변경 애로 ◀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지금 다니는 사업장에 2014년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2016년4월이며 F-4 비자로 변경할 예정임, 2015년2월부터 월급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문의를 해옴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4년4월경 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년12월경 사업장 경영악화로 폐업하여 사업장 명칭이 바뀌어, 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승계 신청을 안했음

- 센터에서 근로자가 알려준 사장님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사업장 법인이 바뀌었으나 부가세 미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못 한 상태임, 그래서 고용승계 신청을 못한 상황임(다른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승계 신청 함), 센터에서 고용주에게 사업장을 승계하면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서 고용승계신청을 하여야하나, 현재고용승계신청은 불가능 하며, 근로자가 H-2체류자격에서 F-4동포비자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체류비자변경 조건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근로 하여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에는 해당 안됨. 근로자는 2016년12월까지 3년 체류 만기임, 현재 근로자와 사장은 서로간에 갈등이 쌓인 상태임.

- 6월3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센터에 내방 함, 서로 쌍방 입장 말을 듣고 고용센터에 빠른 시일내에 근로자의 개시신고를 하고 체류 만기 때 재고용연장(1년10개월)을 해주기로 함 근로자도 좀 양보하고 쌍방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내용은 주식회사 A회사가 존속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는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만2년 이상 근무 할 수 있도록 (F-4비자 변경) 최대한 지원 하겠다, 위내용에 고용주 서명함. 합의서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역 함

2. 상담포인트

○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요건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어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방문취업자격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변경을 할 경우 1개월이내에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 OFC 7월 행사 안내

## 첫째 주

- ★ 바다무지개 소식지 발간
- ★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 둘째 주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
-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방문
- ★ 광주-창원센터 제2회 워크샵(세미나)
- ★ 창원시청 기업사랑과 방문(어울림한마당관련 업무협의)
- ★ 농축산업사업장 밀착상담 서비스 - 진주시 금산면사무소 2층

## 셋째 주

- ★ 마을한의원 무료진료(15:00~17:00)
- ★ 제14회 이미용서비스 실시(09:30~12:00, 15:00~16:00)
- ★ 한국어교육 상반기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11:00, 14:00)
- ★ 201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10:00, 13:00)
-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
- ★ 상담통역원 역량강화 교육(15:00~17:00)
- ★ 농축산업사업장 밀착상담 서비스 - 진주시 금산면사무소 2층

## 넷째 주

-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4:00~16:00)
- ★ 제41회 TOPIK 시험(08:00~) - 경남대학교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
- ★ 농축산업사업장 밀착상담 서비스(13:00~18:00)

## 다섯째 주

- ★ 2015년 상반기 수료식 및 제3회 Korean Dream 한마당(12:00~15:00)
-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

## OFC와 함께해요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mailto: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http://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후원에 주셨습니다.

- 06월 09일 통도사자비원 1,000,000원
- 06월 25일 유가네칼국수 500,000원
- 06월 29일 (주)푸드뱅크 음료 16BOX

## <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